

타자에 대한 사랑과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을 중심으로

정재림(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창작된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기독교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두 작가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주된 인물로 등장시켰으며, 이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이들이 소설적 대상으로 선택한 소외된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 고아와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런데 두 작가가 대상 인물들에게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인 연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며 진정한 사랑을 모색한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전영택의 경우는 냉정한 관찰을 통해 관찰 인물뿐만 아니라 독자에게까지 윤리적 책임을 묻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임옥인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혈연을 넘어선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소설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독교 교리 위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기독교적 사랑을 관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감동적인 주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기독교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기독교문학, 기독교적 세계관, 전영택, 임옥인, 타자, 공감, 사랑, 비혈연공동체

* 2011년 2월 10일 접수, 3월 4일 수정, 3월 21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08년도 기독교 학문 연구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기독교문학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해 가기 어렵다. 하위장르에 대한 연구가 장르적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독교문학을 논하는 연구가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문학연구에서의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자기 규정에는 보다 복잡한 고민들이 내재해 있다. 즉 기독교문학이 ‘기독교’와 ‘문학’의 합성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 항 가운데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문학의 본질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예술로서의 문학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어 문학성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기독교문학은 단순한 호교문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반면 기독교문학의 본질을 문학에서 찾는 견해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강조로 치달아 세속문학과 차별성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양극단이 내포한 위험을 고려한다면, 이상적인 기독교문학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되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문학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의 가치’와 ‘문학의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¹⁾ 여기서 문학의 예술성은 보편적인 문학의 본질적 요건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고민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사안은 문학작품이 기독교적 세계관²⁾을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작가의 문학행위가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적 상상력에 기반해 있는지, 그 정신적 가치가 문학 속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된 문학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기독교문학을 세계관의 차원

1) 기독교문학 연구자들은 기독교문학의 두 가지 조건이 정신성(종교성)과 예술성이라는 것에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관심 및 연구 대상에 따라 기독교문학에 대한 정의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문학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상당한 지면을 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를 해석하고 행동하는 틀’로 정의된다. 김영한은 세계관을 인식의 틀, 사고의 준거 내지 지침, 사고와 행동의 근본 전제, 삶의 비전, 세계상, 행위의 지침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김영한(2009: 21-53) 참고.

에서 접근하는 관점은, 한국기독교문학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세계관 차원에서 기독교문학을 정의하는 잣대를 가져올 때, 기존의 한국기독교문학은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것으로 평가되기 쉽다는 것이다.³⁾ 세계관 차원에서 기독교문학을 논하게 될 때, 특히 소설 장르에서 모범적인 기독교 소설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시 장르의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세계관을 구체화하여 형상화해야 하는 소설 장르의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모범적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지나치게 완고한 기준에 의해 생산된 결과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가져볼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문학을 함량미달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양의 기독교문학과 견줄 만한 기독교문학이 한국문학에는 없다는 자조보다는, 한국 기독교문학의 전통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을 찾는 가운데 기독교문학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두 작가, 전영택과 임옥인의 문학을 고찰하며 기독교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본고는 전영택과 임옥인을 대상작가로 선정하였다. 첫째, 두 작가의 세계관을 검토하는 별도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이다. 전영택은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서울감리교 신학대학교수 등을 역임한 목회자이자 소설가이다. 임옥인 역시 자기 인생의 세 기둥이 '교육, 문학, 신앙'이라고 밝힐 만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창작

3) 개화기나 근대 초기의 대다수 기독교 소재의 문학이 세계관 차원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독교를 수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대 문학인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낼 만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를 종교로서 수용하기보다는 '근대성의 상징'으로 활용한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의 근대소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재립(2010: 265-292) 참고.

4) 김병익(1984)과 한승옥(2010)은 기독교 소설이 부진한 원인을 장르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활동에 임했던 작가이다. 둘째, 두 작가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두 작가의 소설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사는 기독교적 교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서사적 긴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두 작가가 기독교 세계관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창작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해 준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이 이들의 기독교 소설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 주제 의식이 전면에서 배제되지 않은 작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윤리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의 1장에서는 이들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레비나스(E. Levinas)와 쉘러(M. Scheler)의 윤리학과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 반성을 일깨우는 전영택 문학의 특성을, 3장에서는 타인을 가족으로 끌어안으려는 지향을 갖는 임옥인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타자와의 만남과 윤리적 주체

우리는 왜 이웃을 선대(善待)해야 하는가? 비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적 접근이나 이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웃에 대해 윤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덕목이다.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듯이 기독교인에게서는 과부, 고아, 나그네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한 행위의 근거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는 논리는, 도덕적 행동의 원인을 이성에서 찾는 칸트적인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즉 이웃을 선대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감동한 계율로 받아들여 윤리적 행위를 함으로써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28)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이러니하게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윤리학은 이성이나 지성을 도덕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윤리학설, 즉 칸트적인 입장에 기울어진 윤리학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금교영, 1999: 4) 윤리의 근거를 이성에서 찾는 기존 윤리학의 계보에서, 인간에게 사랑과 동감의 능력이 내재해 있다고 전제하는 켈러의 ‘동감의 윤리학’은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켈러는 감정을 정신보다 열등한 차원으로 취급한 이성주의자들과 달리, 감정이 인간의 윤리적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역설하며, 감정의 가치 직관만이 선을 보장한다는 ‘감정론적 윤리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Max Scheler, 2006) ‘사랑의 윤리학’으로 나아가는 켈러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반작용하는 ‘동감’⁵⁾ 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켈러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감력을 통해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된다. 즉 켈러의 입장에 따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칸트식의 정언명령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켈러가 동감 능력에 근거해 사랑의 윤리학을 주장했다면, 레비나스는 주체중심의 철학을 비판하며 윤리적 주체를 세워야함을 역설했다. 레비나스는 스승인 후설(E. Husserl)과 하이데거(M. Heidegger)의 철학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요지는 “서양 존재론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서동욱, 2000: 140)”이라는 점이다. 나치의 공포를 직접 체험했던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체주의가 출현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중심에 놓는 서양의 형이상학, 즉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앞의 책, 141)”이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비극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켰음을 지적한다. 주체 중심의 철학을 비판하는 레비나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서양철학에서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타자’의 존재에 주목한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타자란 결코 주체(동일자)로 환원되지 않는 타인이다.(강영안, 2005: 31) 즉 어떤 친밀성에 의해서도 용해되지 않는 낯선 자인데, 이 타자는 주체가

5) ‘동감(同感)’은 ‘Sympathie’ 또는 ‘Mitgefuehl’의 번역어로 ‘공감(共感)’으로도 번역된다. 조정옥은 공감이 타인의 고통을 타인과 함께 느끼는 작용에 중심을 둔 반면, 동감은 타인과 같은 고통 내용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로서 작용이 아닌 고통 내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후자가 적절한 번역어라고 지적하는데, 본고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동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Max Scheler(1973: 5-12) 참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을 가진 존재다. 주체가 아닌 타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주체의 죽음’을 역설하는 프랑스 철학과 동류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주체의 해체로 나아가는 해체철학과 달리, 레비나스의 궁극적 목적은 “주체성의 변호(강영안, 2005: 32)”, 즉 ‘윤리적 주체’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그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적 주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말하는 타자란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이다.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죽어가는 타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바치는 것, ‘여기 제가 있나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참된 인간성의 차원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와 쉐러의 철학은 서양 윤리학의 계보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⁶⁾ 그런데 주체에서 타자로 강조점을 이동시키는 이들의 윤리학이 약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된 산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기독교의 교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분리된 둘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일한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다. 레비나스가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무한으로서의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천착하기보다 타인의 얼굴로 계시되는 하나님을 그려내는 데 주력한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이 기독교적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리적 자각: 전영택의 소설

(1) 주변화된 타자를 드러내는 윤리감각

전영택은 김동인, 주요한, 김환과 함께 최초의 순문예지 『창조』를 만들었던 인물이지

6) 서양 윤리학의 계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쉐러의 철학과 레비나스의 철학이 타인을 중시한다는 흥미로운 공유지점을 갖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두 철학자가 제시하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두 철학자의 공통지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7) 레비나스가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에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한자(신=타인)와의 만남을 통한 주체의 형성을 논하는 그의 철학이 기독교와 배리되는 것은 아니다. 레비나스 이론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원빈(2010) 참고.

만, 김동인, 주요한 등 다른 동인에 비하여 문학사적 평가 및 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전영택의 문학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대개 전영택의 문학이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전기 소설과 기독교적 휴머니즘에 경도된 후기 소설로 이분된다는 것, 기독교적 교훈주의에 함몰된 후기 소설에 비하여 전기 소설이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로 요약된다.⁸⁾ 백철은 『창조』에 실린 작품에서 직접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만기(晩期)로 오면서 전영택의 문학이 설교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졌다고 평가하였다.(백철, 1964: 105) 오창은 역시 “지식인과 하위계층, 그리고 윤리의 문제”에 집중한 초기 작품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매개로 갈등의 화해를 추구”한 후기 작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오창은, 2009: 189) 하지만 전기와 후기로의 이와 같은 구분은 전기의 작가의식과 후기의 작가의식이 단절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러한 구분법은 전영택 문학 전반을 관류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신학생의 신분으로 동인활동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로 창작에 임했던 후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세계관은 작가에게 핵심적인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⁹⁾ 자연주의적 계열이라고 일컬어지는 초기 소설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며, 그것이 동시기 작가들과 전영택이 차별되는 뚜렷한 지점이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동시기 작가들이 ‘자기(自己)’라는 것에 몰두하는 문학적 경향을 보일 때, 전영택이 ‘자기(주체)’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된 약자에 관심을 가지는 독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화된 타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초기 소설의 문제의식은 기독교적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8) 논자에 따라 ‘자연주의적 경향’, ‘인도주의적 경향’, ‘기독교적 경향’의 세 시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자연주의적 경향에서 기독교적 경향으로의 이동으로라는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한 구분이라 하겠다. 다음의 논의를 전영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는데, 이 중 오창은의 논의는 전영택 문학의 윤리적 특질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공유점을 갖는다. 하지만 윤리의식과 기독교적 관점의 관련성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가 있다. 강요열(1981), 김세령(2000), 임희종(2005), 소영현(2007), 오창은(2009) 참고.

9) 전기/후기의 구분법은 전기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거나 억제되다가, 후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전면화 된다는 식의 논리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전후기를 관통하는 작가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전기와 후기에 굴절되어 표면화된다고 보는 것이 전영택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유용한 가설일 수 있다고 본다.

비극적인 현실의 모습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그리는 데서 멈춘다. 하지만 가난한 이웃의 불행을 냉정하게 응시하는 태도는 윤리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창조』 창간호에 실린 『혜선의 사』(1919)와 『창조』 3호에 실린 『운명』(1919)은 표면적으로 보면, 동시기의 유행하던 주류담론을 그대로 모방한 작품처럼 보인다. 즉 이광수의 『무정』(1917) 이후 하나의 모델로 등장한 자유연애를 주된 모티프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혜선의 사』의 주인공 ‘혜선’은 여학교 학생이다. 결혼을 했는데도 그녀가 여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유학생인 그녀의 남편이 동경에서 만난 신여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신식교육을 받았음에도 구식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혜선이 남편의 이혼 통고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다는 것이 소설의 줄거리인데, 작가 스스로가 ‘습작’이라고 말할 만큼 이 소설은 기법상의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당대의 유행이던 자유연애를 다루는 전영택의 태도가 상당히 독특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연애와 이혼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활용하되, 『창조』 창간호에 실린 다른 작품들과 『혜선의 사』 사이에는 작가의 관점과 태도에서 비롯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⁰⁾ 『황혼』 등의 다른 작품은 전처와의 이혼을 통해 과거와의 결별을 선포하며, 신여성과의 자유연애를 통한 ‘참결혼’을 가치있는 것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전영택은 ‘참자기’의 건설이라는 『창조』 동인들의 구호에 동의하면서도, ‘자기’ 건설의 당위 속에 희생되는 타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즉 “시대가 나은 불상한 여성의 가련한 죽음”(전영택, 1919: 59)을 보아 달라는 작가 후기의 말처럼, 이 소설의 초점은 동경 유학생과 신여성이 ‘참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희생물이 되고 마는 혜선에게 맞춰져 있다. 참자기의 실현이나 전처와의 이혼을 당위로 내세웠던 김환 등과 달리,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희생되

10) 『창조』 창간호에는 최승만의 희곡 『황혼』, 김환의 소설 『신비의 막』, 전영택의 소설 『혜선의 사』, 김동인의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이 실려 있는데, 이 작품들은 자유연애와 그로 인한 갈등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창조’라는 제호(題號)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창조』 동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창조는 파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아버지, 유교, 전처 등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것이 파괴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강요에 의해 성립된 구식결혼은 파괴의 대상이 되며, 전처와의 이혼은 ‘참혼인’, ‘참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표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김행숙(2005) 참고.

는 여성에 관심을 두었다는 데서 전영택의 차별성은 확인된다.¹¹⁾ 즉 그는 자유결혼의 긍정성과 구식결혼의 폐해를 보여주는 한편,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외치는 새로운 주체들의 주장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타자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다.

주체에 의해 감춰진 주변부의 낮은 목소리에 대한 관심은 『운명』에서도 확인된다. 『운명』의 주인공 오동준은 동경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식인으로 만세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다. 동준이 초점화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남성 주인공의 내면심리이다.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남성 주인공이 새삼 자각하는 것은 ‘자기’의 중요성이다. “각각 자기 생각이 가장 가치있고 가장 긴절한 줄로 알고 자기의 문제가 가장 難問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문제만 바로 解決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운명』, 71)”¹²⁾는 고백처럼 동준은 감옥에서 자기 생각에 골몰하는데,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애인 H에게서 소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연락이 없는 애인에 대한 갖가지 상상을 하다가 그녀를 ‘여성적 사탄’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출옥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그녀의 행위는 ‘여성적 사탄’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다. 그가 감옥에 있던 사이에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귀어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운명』은 시종일관 초점화자인 동준의 시각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스럽게 동준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 즉 동준의 행로를 따라 ‘감옥→출옥→동경’으로 이동하며 연인 H의 비도적적 행동을 목도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소설에 삽입된 두 개의 편지, 특히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H의 편지는, 작가의 의도가 동준의 논리와 일치하지만은 않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그녀의 편지는 동준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기주의자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H의 부정한 행위는 동준이 여성의 창조가 하나님의 실수라는 극단적인 논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신의 변심 이유를 밝히는 H의 편지는 둘의 파탄의 책임을 동준에게서도 찾아야 함을 입증해 준다.¹³⁾ 즉 편지의 고백은 상대

11) 강요열(1981)은 여주인공의 성격을 통해 인도주의적 주제를 제시하는 소설이 전영택 작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2) 전영택 소설의 본문은 목원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늘봄 전영택 전집』을 인용하였으며, 이하 작품명과 인용면만 표기한다.

13) 첫 번째 편지는 독자로 하여금 부정하고 이기적인 동준의 성격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방 여성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전개된 전반부의 논리를 깨뜨리며 균형있는 시각을 마련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운명』은 주류 담론이나 주체인 남성에게 의해 억압된 타자들의 목소리를 살려내고 있는데, 이는 전영택 문학이 갖는 독특한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균형잡힌 윤리적 시각이 작가의 종교적 신념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관심, 주류담론이 배제된 타자에 대한 배려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며,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는 전영택의 창작경향이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2)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과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

『천치? 천재?』(1919)와 『화수분』(1925)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발견하기는 어렵다.¹⁴⁾ 하지만 두 소설은 무의식적이고 간접화된 방식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소설은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이기적 주체’가 고통받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작품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데 첫째, 대상 인물을 관찰하는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 지력을 갖지 못한 ‘칠성’과 가난한 화수분 일가이다. 둘째, 관찰자와 대상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다. 『천치? 천재?』의 경우 교사/학생, 정상인/비정상, 『화수분』은 주인/하인, 부자/빈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서술자가 대상인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이 암시된다. 대상 인물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서술자가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이기적 행위를 반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윤리적 주체가 세워질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천치? 천재?』에서 서술자는 덕영학교로 부임한 교사이다. 그런데 소설 초반부에 분명하게 묘사되는 것은 ‘나’에게 교사로서의 책임의식이나 소명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이

사랑에 대한 동준의 태도가 범상치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랑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반면, 결혼을 인공적, 허위적이라고 몰아 세우는 동준의 사랑관(결혼관)은 이들의 사랑이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예고해 준다.

14) “예수 믿고 전도도 하였나이다.”(『천치? 천재?』)라는 구절을 통해 서술자가 기독교를 접한 적이 있음이 암시될 뿐이다.

다. ‘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지 못한 채, 월급 십이 원에 팔려 흥미도 없는 소학교 교사로 가게 된 자기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는 인물인 것이다. 부임 첫날 추운 방에서 자면서 ‘나’가 하는 걱정도 “今年겨울에 어러죽지나 아늘가(『천치? 천재?』, 61)”라는 염려이다. 소설 초반부의 정황에 의하면, 그는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인물, 즉 이기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천치’라고도 ‘천재’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칠성’이란 아이와의 만남이다. 얼굴 생김새나 떨어지는 지력으로 보면 칠성은 천치처럼 보이지만, 천사와 같은 노랫소리나 저절로 움직여 가는 배를 만드는 창조력을 본다면 천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선생이나 가족들의 눈에 칠성의 행동은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비취지고 결국 칠성은 평양으로 가는 길에서 얼어 죽고 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기적인 ‘나’가 칠성의 죽음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는 인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¹⁵⁾ 칠성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죄책감은 소설 마지막에 덧붙여진 ‘자백’에 잘 드러나 있다.

마지막에 내가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내가 자백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칠성이 없어지기 전날에 학교에서 어떤 큰 학생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을 하나씩 불러서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중략...) 전후를 생각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함부로 때리기를 몹시 하였습니다. 칠성은 내가 죽인 셈입니다. 칠성은 남이 가진 시계에 욕심을 내어서 훔친 것은 아니외다. (...중략...) 나쁜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칠성의 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동네, 그런 세상을 칠성은 떠났습니다. (...중략...) 칠성은 찬바람 몹시 부는 겨울에 버드나무 밑에서 눈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호호 불면서 바들바들 떨다가 죽은 것은, 오직 밤새도록 자지 않고 반짝이던 하늘의 별들이 내려다 보았을 줄 아나이다. (『천치? 천재?』, 1994: 67-68. 밑줄—인용자)

“칠성은 내가 죽인 셈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칠성의 죽음에 대한 ‘나’의 죄책감은 크다. 여기서의 죄책감이란 단순히 자신의 만년필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분노로 칠성을 채찍질했다는 뉘우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성/비정상성의 기준으로 칠성을 재단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가 칠성을 타자화하

15) 물론 ‘나’의 책임감이 돌발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그는 생계 때문에 특영학교 교사로 오게 되면서도, 자기로 인해 아이들이 천치가 될 수도 있고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적으나마 ‘책임감’을 느꼈었다. 그러므로 미약하게 존재하던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칠성의 죽음으로 극대화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여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이다. 즉 타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근원적인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과 자각은 소설 초반부의 ‘나’의 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초반부의 자기 염려에 사로잡혔던 주체가 윤리적 주체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수분』에서 역시 동일한 서사 구조가 반복된다. 가난한 화수분 가족을 관찰하는 역할은 주인공 남자인 ‘나’에게 맡겨져 있다. ‘나’의 가족은 화수분 일가에 비한다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소한 먹을 것과 거처에 대한 걱정은 없는 형편인 것이다. 반면 아홉 살 먹은 큰딸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버릴 정도로 화수분네 식구들은 극한의 궁핍에 처해 있다. 하지만 화수분 일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동정적 차원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형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화수분이 시골로 가게 될 때, ‘나’와 아내가 보이는 대처 방식은 그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아내는 “김장이나 해주고 가야 할 터인데(『화수분』, 202)”라고 걱정하며, ‘나’ 역시 “곳 당겨오게. 겨울을 나서는 안 되네.(『화수분』, 같은 면)”라고 당부한다. 이는 이들 부부가 몰인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 이상이 되지 못함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결국 화수분의 아내는 둘째 딸을 끌고 시골로 내려가다가 화수분을 만나고, 셋은 한데서 겨울밤을 보내다가 동사하며 소설을 끝낸다. 칠성이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천지? 천재?』와 화수분과 그의 아내가 동사(凍死)하는 『화수분』의 결말은 분명 비극적이다. 하지만 비극적 결말을 근거로 전영택의 작가의식을 비관주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는 서술자, 나아가 독자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 밑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 것 엮는 현 누더기를 쓰고 한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분은 왁 달려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이 뚝이나 말은 못 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 한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수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싣고 갔다.(『화수분』, 204)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화수분』의 마지막 부분은 제3의 시점에 의해 객관적으로 서

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나’가 화수분을 천거해 주었던 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의 시점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찰처럼 보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는 화수분의 죽음을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는 ‘나’의 반성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천치? 천재?」, 「화수분」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전영택은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이기적 주체의 행위가 갖는 비윤리성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기적인 주체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전영택의 초기소설은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경향의 문학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주류담론이 배제하고 억압한 타자의 목소리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타자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윤리적 주체의 자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영택의 초기 소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상인물을 관찰하게 하는 서사 구조는 서술자(나아가 독자)의 윤리적, 반성적 성찰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천치? 천재?」와 「화수분」에서 관찰자와 관찰대상은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관찰자는 대상인물보다 지적, 경제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있으며,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들은 자기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한계를 갖는다. 즉 그들은 의식주(衣食住)의 문제에 집착하는 존재, 자기 삶의 향유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기적 주체들이다. 그런데 소설에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며 이기적 주체들은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에서 윤리적인 주체로 전환될 계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전영택의 초기 소설은 기독교적 소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기독교적 윤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3.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모색과 기독교적 사랑: 임옥인의 소설

(1)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비혈연 가족공동체의 모색

임옥인은 1939년 8월 《문장》지에 「봉선화」가 추천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90여 편의 단편소설, 13편의 장편소설을 남겼다. 임옥인은 “등단 초부터 ‘여성’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여성의 세계를 그리고자 한 여성작가였으며, 분단과 전쟁,

가난과 고독의 현실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과 문학에서 실천하려했던 기독교문인”(정재립, 2010: 447)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장편소설 『월남전후』만이 문학사에서 간혹 언급될 뿐 임옥인 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양적, 질적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옥인 문학이 문학사에서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문학이 ‘기독교적 교훈주의에 함몰’되었다고 본 연구자들의 편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임옥인 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다. 특히 해방 이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난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빠』(1948)와 『구혼』(1954)의 인물은 신체적 불구로 사회적인 소외감을 겪는 인물들이며, 『무애의 호소』(1949), 『패물』(1956), 『해바라기』(1957), 『행운의 열쇠』(1967)의 여성들은 가정의 따듯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장편소설 『월남전후』(1956)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 역시 이데올로기적 탄압과 가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부처』(1953)와 『노숙하는 노인』(1957)의 인물들은 머물 집조차 잃은 채 거리로 내몰린 처지이다.

『부처』는 전후의 피난지 대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전후의 불모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1950년대 소설들이 비극적 어조를 띠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소설은 불모의 현실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선한 인간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부처』의 부부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 역시 생계 유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소설 초반의 꿈꿈한 묘사에서 확인하듯, 부부는 돈을 모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어 지어야겠다(『부처』, 250)”¹⁷⁾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다.

16) 임옥인 문학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유명작가 중심의 문학연구 풍토”, 둘째, “여성작가라는 제약”, 셋째, “기독교적 교훈주의에 함몰되었다는 편견”이다. 본인은 『임옥인 소설 선집』의 해설을 통해, 임옥인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정리하고 그녀의 문학이 비혈연공동체를 모색하는 기독교 윤리를 구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본고는 기독교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환으로 보다 자세하게 임옥인 문학의 기독교적 특질을 고찰한 것인데, 이 중 비혈연공동체의 모색, 타자 이해의 지난함이라는 문제의식은 해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정재립(2010) 참고.

17) 임옥인의 소설의 본문은 현대문학에서 출간한 『임옥인 소설 선집』을 인용하였으며, 이하 작품명과 인용면만 표기한다.

“백 원만 덜 해서 4천 2백 원에 주이소예.”

아내는 못 이긴 채 고개를 끄덕이며 비누를 종이에 싣는다. 그래도 몇 백 원 이(利)가 있는 것이다. 돈을 받으며 남편을 쳐다보면 남편은 손을 놀리면서 고개를 돌려 빙글 웃는다. 벌써 남편은 구두 두 켤레에 만 원을 벌고 아내는 양담배 세 갑, 비누 여성 장에 6천 원을 남겼다. 돌이켜 점심 전에 1만 6천 원을 번 셈이다. 마음속이 후련하다. (『부처』, 251)

소설 초반부에 묘사된 꼼꼼한 돈 계산, 그리고 돈을 저축하며 느끼는 부부의 희열은 이들이 의식주에 관심을 가지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모습이 전후의 각박함 속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과 뚜렷하게 달라보이는 까닭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사랑이 부부애로 국한되지 않고, 다른 피난민을 향한 사랑과 연민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 전에 알고 지내던 복순 엄마가 가족을 잃고 피난지에서 장사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알게 되자, “점심을 사서 대접하고 그날 판 돈을 툭툭 쥐여서 돌려보내며 개울 바닥 하꼬방 동네 셋방을 찾아오라고 전한다.(『부처』, 253)”

소설 초반에서 부부의 유일한 꿈은 ‘집’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설의 결말까지도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설은 소망이 지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 아내의 질병, 장마 등이 소망을 좌절시키는 원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가난한 이웃을 지나치지 못하는 부부의 선한 마음에 있다. 질병과 장마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이유라면, 연민과 동정심은 내적인 사유이다. 폭압적 현실과 양심으로 인해 부부의 소망은 끝까지 유예될 뿐만 아니라, 장마에 하꼬방과 장사 밀천까지 떠내려 가고 만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에서도 작가는 희망의 비전을 버리지 않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저 건너 언덕에 초가삼간을 짓고 복순 엄마도 함께 살자던 노릇이 오히려 지금 식모살이로 그를 찾아가게 되었으니……. 부처는 우선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고 싶은 것이었다. 아내의 걸음이 허둥지둥 비칭거리면 남편이 부축하고 남편이 기운을 잃으면 아내가 부축하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걸음을 빨리했다.

(…중략…)

“또 벌어서 내년 봄에는 틀임없이 짓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년 봄까지는 내 다시 앓지 않을게요.”

해는 점점 중천에 밝아갔다. 야위었던 부처의 볼도 차츰 밝아졌다. (『부처』, 267-268)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법한 절망적 현실에서도 부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순 엄마가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고, 또한 새로이 집을 지을 내일이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짓고자 한 것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구성된 형이상학적 의미의 ‘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자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모티프는 『행운의 열쇠』를 관통하는 주체의식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수필 같은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행운의 열쇠』, 391)”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수필/소설, 사실/허구의 경계에 놓인 소설이다. 수필 같은 소설이라는 고백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소외된 노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서술자의 모습은 작가인 임옥인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한다.¹⁸⁾ 소설에서 ‘나’는 양로원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 언니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게 된다. ‘나’는 몇 차례의 왕래를 통해, “그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는 그의 딸이 되어버렸다. 어떤 의무에서가 아니라 자연지정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행운의 열쇠』, 407)”라고 고백한다. “그분은 나의 고향이다. 할머니다. 어머니다.”라는 말에서 혈연적 가족을 초월한 가족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전후 시기의 소설 가운데 이처럼 희망의 비전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작품, 그리고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는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옥인 문학의 독특한 지점이라고 하겠다. 임옥인이 각박한 해방 이후, 전후의 현실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옹호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이해의 지난함과 소설적 감응력

이웃에 대한 사랑,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 공동체의 모색은 피상적인 구호뿐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다. 그러나 임옥인의 주체의식을 피상적인 교훈주의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한 평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임옥인의 소설은 『구혼』과 『노숙하는 노인』에서 확인되

18) 어려서 조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작가가 어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노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작가와 남편인 방기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이들이 가난한 고학생과 고아들을 자식처럼 돌보았다는 점 등은 임옥인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작가의 실제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서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옥인(1984) 참고.

듯,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포한 위험과 한계를 간과하지 않는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숙하는 노인』은 기독교적 사랑의 참 의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의 지남함과 사랑에 포함된 위험성도 사실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노숙하는 노인』의 ‘나’는 새벽 기도회에 매일 참석하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매일 팔죽집 앞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에서 노숙하는 병어리 노인을 매일 마주쳐야 한다. 영하 15도의 혹한의 날씨에 노숙을 하는 노인의 존재는 ‘나’의 기도에 큰 방해거리가 된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무정함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간구하던 ‘나’의 기도제목이 다름 아닌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웁니까? 주여, 그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듬어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무렵 내게 있어서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사랑’ 그것이었던 것이다. 아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도 내가 구해야 할 제목은 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략…)

아아, 어찌해서 그렇게 소중하다는 소마보다도 그다지 귀중하다는 믿음보다도 사랑은 더 중하고 고귀한 것이 되는가? 사랑 사랑 사랑! 나는 이 사랑이라는 어휘를 가슴에 새기고 입속에 굴리며 자꾸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노숙하는 노인』, 287-288, 밑줄—인용자)

그러므로 병어리 노인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그토록 고민하던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며, 사랑의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나’는 길에서 떨고 있는 노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고, 그가 병어리이며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된다. 노인의 대한 관심은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주는 행위, 집에서 쓰지 않는 옷을 챙겨다주는 행동으로 발전한다. ‘나’는 “이 병어리 노인을 두고 가슴이 마구 아파오는 것이다. 마치 내 아버지가 그 모양이 된 것을 버려둔 것 같은 느낌(『노숙하는 노인』, 292)”을 가지기까지 한다. 거지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던 이전의 ‘나’를 떠올리면, 이러한 변화는 사랑을 알게 해 달라는 애절한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노숙하는 노인』, 293)”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남은 옷을 챙겨주는 것은 동정에 불과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병어리 노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게 된다. 즉 ‘나’는 노인을 안전한 요양원으로 보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노인이 거처할 요양원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소설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사회적 무관심과 부조리가 우회적으로 비판된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가는 타인을 환대하는 ‘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그 사랑에 내포된 함정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나’는 노인을 양로원에 보내게 되자 “기도시간은 전에 없이 즐거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다 이루어라’ 간구하면 응답이 있으신 신의 음성인 것 같았다(『노숙하는 노인』, 319)”라고 고백하는데, 이 희열 속에는 노인에 대한 사랑 이상의 감정, 즉 자신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자기 도취적 면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 결말의 반전 부분은 ‘나’의 사랑이 갖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다. ‘나’는 요양원에 노인을 보내고 마음 편하게 며칠을 지낸다. 하지만 며칠 후 노인이 의식주를 해결해줄 요양원을 빠져나와 다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뜻밖의 결말은 서술자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도록 유도한다.

요양소를 나온 노인의 선택은 ‘나’의 사랑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것임을 단적으로 예증해준다. 처음부터 ‘나’와 노인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았다. ‘나’는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는 동정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그 동정은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니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것이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던 노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발차신호가 나자 나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노인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판 세계에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앉았으되 도무지 섞일 수 없는 판 성분(成分)처럼 우두머니 앉아 있었다. 이때까지 내가 줄곧 노인에게 쏟은 관심을 노인은 그대로, 아니, 훨씬 더 과장해서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었던 나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차가 움직이자, 나는 갑갑해서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제서야 어느 모를 세계에 시선을 보내며, 주위와는 완전히 격리된 세계에 앉아 있던 노인의

젖은 눈이 나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끄덕끄덕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은 조금도 반갑다거나 고맙다는 뜻의 그것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의 수궁인 표시였을 뿐이었다. (『노숙하는 노인』, 321-322)

노인을 요양원으로 보내기까지, ‘나’는 노인이 따뜻한 집을 구하려고 한다는,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자신의 계획에 노인이 동의하고 고마워한다고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노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딴 세계에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그래서 그 세계는 “주위와는 완전히 격리된 세계”처럼 보인다. 노인에게서 발견한 낯설음은, 노인에 대한 사랑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불안은 적중하여 노인은 노숙자 신세로 돌아온다. 하지만 “무정하고 불결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내 몸을 탕탕 부딪혀 가면서 사랑을 배우리라던 나의 기도는 그러나 그러한 대상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더듬을까에 대하여 실로 다시 암흑과 같은 좁고 힘든 길을 더듬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고백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갖는 한계를 충격적으로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III. 결론

기독교문학에서 중요한 점은 목회자나 기독교 신자인 인물이 등장했는가, 혹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문학의 관건은 정신의 문제, 세계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한국기독교문학 연구들이 세계관의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한국기독교소설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가 거의 없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정착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 등이 진지한 소설적 주제로 형상화되지 못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기독교문학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기독교 소설이 성취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고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전영택과 임옥인, 두 작가의 소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가 주된 인물로 등장하며, 이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존재함이 이 소설들이 일깨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작가가 사랑의 대상으로 설정한 주변적이고 소외된 이웃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과부와 고아와 다르지 않다. 본고는 소외된 이웃에게 동정 어린 연민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 두 작가의 새로움이 있다고 본다. 전영택의 경우는 냉정한 관찰을 통해 독자에게까지 윤리적 책임을 묻는 효과를 얻었으며, 임옥인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혈연을 넘어선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을 진지하게 모색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요열 (1981). “전영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교영 (1999). “막스 쉐러의 윤리학적 공감론”. 『철학논총』 (16). 3-23.
- 김병익 (1984).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현대 문학과 기독교』.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세령 (2000). “전영택의 초기 소설 연구”. 『상허학보』 (6). 245-288.
- 김영한 (2009). 『기독교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김행숙 (2005).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서울: 소명출판사.
- 박원빈 (2010).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 백 철 (1964). 『한국문학의 이론』. 서울: 정음사.
- 서동욱 (2000).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지성사.
- 소영현 (2007). “1920년대 초반 예술/윤리의 자기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33). 225-256.
- 오창은 (2009).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인식과 윤리의식”. 『한국문학논총』 (52). 185-214.
- 임옥인 (1984). 『나의 이력서』. 서울: 정우사.
- 임옥인 (2010). 『임옥인 소설 선집』. 정재립 엮음. 서울: 현대문학.
- 임희중 (2004). “늘봄 전영택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택 (1994). 『늘봄 전영택 전집1』. 표언복 엮음.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 정재립 (2010). “근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의 세 양상: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의 경우”. 『서강인문논총』(27). 265-292.
- (2010). “임옥인의 삶과 문학”. 『임옥인 소설 선집』. 서울: 현대문학
- 한승욱 (2010). 『기독교와 소설문학』.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 학술총서1』. 서울: 박문사.
- Scheler. M. (197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역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ABSTRACT

Love for Others and Possibility of an Ethical Subject:

With a Focus on the Novels by Yeong-taek Jeon and by Ok-in Im

Jae-rim Jeong(Korea Aerospac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directions in Korea's Christian literature by reviewing Yeong-taek Jeon's and Ok-in Im's novels written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s. Both the writers made the socially weak who were alienated and poor their main characters and show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suffering lied in all of us. The alienated neighbors that they wrote about in their work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widows or orphans in the Bibl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two authors recognized them as subjects and searched for true love instead of lavishing charity or sympathy on them. While Jeon created an effect of holding the readers as well as the observing characters ethically accountable through calm observations, Im was unique in that sh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non-blood family community beyond the blood t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amily. Their novels are considered to be successful Christian novels in that they were created on the Christian doctrines that unite love for God and love for neighbors together and promoted Christian love with universal and touching topics instead of abstract slogans.

Key Words: Christian literature, Christian world view, Yeong-taek Jeon, Ok-in Im, others, sympathy, love, non-blood community